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 우정이라는 감각

키워드

#청소년 #우정 #약한연결 #관계 #성장 #연대 #정체성

작성자 : 능곡고등학교 교사 조인혜

학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전체 수업 운영 계획

단계	차시	학습 단원 및 내용 활동
읽기 전	1차시	생각 열기
읽기 중	2차시	「자꾸만 보이는 아이」
	3차시	「우정이라는 감각」
	4차시	「십자가」
	5차시	「사과」
	6차시	「궤도를 벗어나면」
	7차시	「담력 테스트」
	8차시	「모두가 같은 마음」
읽기 후	9차시	작품 전체 감상 및 읽기 전 활동과 비교하기(이전 생각, 지금 생각)
	10차시	질문 만들고 확장 토론하기

청소년들의 관계와 우정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소설집 『우정이라는 감각』은 ‘우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잡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곱 편의 소설을 통해 다채롭게 보여 준다. ‘원래부터 친한 친구’가 아니라 ‘우정’이 만들어지는 ‘우연’과 ‘불완전함’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관계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독자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삶의 맥락에서 관계에 대한 고민과 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독서 지도안은 고등학교 수준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지도안이다. 단, 각각의 활동은 학습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작품과 잇는 것에 중점을 두어 중학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서 수업은 ‘읽기 전-읽기 중-읽기 후’ 단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각 작품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문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먼저 [읽기 전] 단계에서는 ‘생각 열기’ 활동을 통해 공통 소재인 ‘우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우정에 대한 감각적 정의를 내려 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일곱 편의 작품 제목을 보고 가장 먼저 읽어 보고 싶은 작품을 고르고 이유를 써 본다.

다음으로 [읽기 중] 단계에서는 작품별로 한 차시씩 총 7차시에 걸쳐 각 단편소설을 깊이 있게 읽고 탐구한다. 각 차시는 작품별로 짚어 봐야 할 중요한 장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작품 속 인물의 관계 변화와 감정의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작품 분석과 더불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거나 편지를 쓰는 표현 활동 등을 통해 문학적 이해와 자기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에서는 일곱 편의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약한 연결’을 중심으로 전체 작품을 조망하고, 읽기 전과 지금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각 작품에서 ‘약한 연결’이 인물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순간을 성찰한다. 이어지는 마지막 차시에서는 ‘약한 연결’을 질문 초점으로 삼아 모둠별 질문 만들기 와 토의 활동을 펼친다. 토의를 통해 작품에 대한 사고를 개인의 성찰에서 공동의 대화와 탐구로 확장한다.

세부 지도안	읽기 전 활동	1차시
	생각 열기	

1. 『우정이라는 감각』은 ‘우정’의 다양한 감각과 온도를 일곱 편의 소설에 다채롭게 담아낸 소설집이다.  
나에게 ‘우정’이란 어떤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인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빈칸에 자유롭게 써 보자.

	우정	

2. 소설 제목처럼 ‘우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먼저 알아채는 감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나에게 우정은 어떤 감각인지 다섯 가지 감각 중 두 개를 골라 써 보자.

색깔로  
표현하면 (예시) 나에게 우정은 \_\_\_\_\_ 색이다. 왜냐하면...

온도로  
표현하면 (예시) 나에게 우정은 \_\_\_\_\_ °C 정도다. 그 온도인 이유는...

냄새로  
표현하면 (예시) 우정에서 나는 냄새는 \_\_\_\_\_ 이다. (예: 갓 구운 빵, 도서관 냄새...) 이유는...

---

소리로 (예시) 우정을 소리로 표현하면 \_\_\_\_\_ 이다. (예: 협주곡, 빗소리...) 이유는...  
표현하면

---

촉감으로 (예시) 우정을 손으로 만진다면 \_\_\_\_\_ 한 느낌이다. (예: 솜털, 슬라임...) 이유는...  
표현하면

---

3. 위에서 썼던 감각들에 대한 내용을 조합하여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자.

나에게 우정이란, ( )이다.

4. 책의 목차를 보고 가장 궁금하거나 먼저 읽고 싶은 작품을 한 편 골라 보자.

가장 읽고 싶은 작품	
선택 이유	
내용 예측	

---

세부 지도안	읽기 중 활동	2차시
	「자꾸만 보이는 아이」	

1.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과 마주친다. 그들 중 누가 ‘친구’이고 누가 ‘아는 사람’인가?  
그 경계는 어디에 있고 기준은 무엇일까? 자신의 기준을 말해 보자.

모르는 사람	아는 사이	그냥 친구	진짜 친구
관계	기준(조건)		
아는 사이			
그냥 친구			
진짜 친구			
예시 기준	시간(오래 알아야 한다), 경험(같이 뭔가를 겪어야 한다), 선택(서로 친해지려는 의지), 우연(어쩌다 가까워진 것), 취향(좋아하는 것이나 흥미 분야) 등		

2. 아래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온누리와 이서(나)의 관계는 다음 중 어디쯤에 위치할까?

모르는 사람	아는 사이	그냥 친구	진짜 친구
상황	내 판단과 이유		
<p>“그만 좀 하세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내 또래의 여자아가 서 있었다. “어른들 여럿이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는 앤데……. 어떻게 알더라? 성은 모르겠고, 이름이 누리라는 게 퍼뜩 떠올랐다. 우리 반 인싸. 아, 엄청 시끄러운 온누리. 온누리와 그렇게 맞닥뜨렸다. — 22쪽</p>			
<p>온누리와 지호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까지 함께 있었다. 둘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해도 그랬다. 나는 두 사람이 귀찮은 듯이 굴었지만 진짜로 귀찮지는 않았다. — 40쪽</p>			



세부 지도안	읽기 중 활동	3차시
	「우정이라는 감각」	

1. ‘우정이라는 감각’이란 무엇일까? 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작가는 왜 ‘감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다음을 읽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

푸른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광경을 보았다. 귀를 막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다. (···) 어떤 것에도 감흥이라고는 없이 굴더니 어린애 같은 면이 있구나, 했다. 그런데 문득····· 저렇게 해서라도 제 것이라 믿는 책상과 의자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보였다. 그 마음은 자기 안에도 있었다.

— 55~56쪽

- 푸른빛이 동질감을 느낀 순간과 이유

---



---



---

- 작가가 우정에 ‘감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

---



---



---

2. 푸른빛은 위시내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짝이 된 이후 소문과 다른 점들을 발견한다.  
위시내에 대한 소문과 실제는 어떻게 달랐는가?

소문	푸른빛이 느낀 실제

3. 두 사람이 우정을 쌓게 된 결정적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아래 장면을 읽고, 이 장면이 두 사람에게 갖는 의미를 써 보자.

위시내는 위시내대로 말할수록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나 같은 애랑 짝이라 쪽팔리겠네.”

“아니!”

푸른빛이 자기도 모르게 외치듯 대답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했을까? 지나치게 솔직했나? 푸른빛은 괜스레 얼굴이 달아올랐다. 대답을 들은 위시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로의 질문과 대답을 예상치 못한 둘은 당황스러움에 입을 다물었다.

— 56쪽

.....

.....

.....

.....

.....

4. 여러분이 ‘푸른빛’과 ‘위시내’ 중 한 사람을 인터뷰하게 된다면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인터뷰어로서 묻고 싶은 질문을 세 가지 만들고, 인물이 말할 것으로 예상되는 답변 내용을 써 보자.

인터뷰 하고 싶은 인물 :  푸른빛  위시내

묻고 싶은 질문 1)

예상 답변 1)

묻고 싶은 질문 2)

예상 답변 2)

묻고 싶은 질문 3)

예상 답변 3)

세부 지도안	읽기 중 활동	4차시
	「십자가」	

1. 보람이 아빠의 말을 따라 천주교 재단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써 보자.

---



---



---

2. 작품 속 ‘십자가’는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버지는 보람에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위와 통제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람이 몸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던 검은 십자가 대신 내가 만든 붉은 십자가가 손등에 선명하게 새겨져 기분이 좋았고, 비로소 안식이 찾아온 것 같았다.

— 84쪽

- 보람이 몸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의 의미

---



---



---

3. 기숙사에서 만난 은조에 대한 보람의 생각은 변화한다. 다음 장면을 전후로 하여 보람에게 은조는 어떤 사람인지 써 보자.

전	장면	후
	<p>한은조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내가 알 길은 없지만,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허세든 뭐든,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다는 말 같아 좋았다.</p> <p>“이제야 나랑 원갈 해 보고 싶어진 것 같다, 너?”</p> <p>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다.</p> <p>“나를 보는 표정이 달라졌어. ㅋㅋ. 다행이다!”</p> <p>— 88쪽</p>	

4. ‘화장실’은 아버지가 보람을 가두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은조의 목소리가 들리는 공간이다. 다음을 바탕으로 보람이 문을 여는 행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내가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신호야. 알았지? 거기서 나와.”

한은조의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렸다. 밖으로 나가면 한은조를 볼 수 있다. 분명한 건 그거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은 그 대로였다. 눈을 여러 번 깜빡였다. 어둠은 어둠일 뿐이었다. 나는 변기에서 일어섰다. 더듬더듬, 화장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나오라고, 나와야 해. 한은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쟁쟁 울리는 것 같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열지 못한 것은 나 였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어젖혔다. 환한 빛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 98쪽

- 보람이 문을 여는 행위의 의미

---

---

---

---

---

---

---

---

5. 보람과 은조의 관계를 ‘우정’과 ‘연대’ 중 어느 쪽으로 부를 수 있을까? 생각과 근거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우정	연대

세부 지도안	읽기 중 활동	5차시
	「사과」	

1. 소설 속에서 아람은 소문으로 인해 은혜를 밀어내게 된다. 소문이 어떻게 관계를 해쳤는지 파악해 보자.

전개	질문	답변과 근거
소문의 시작	은혜와 아람에게 붙은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아람의 내면	소문을 들었을 때 아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람의 선택	소문 때문에 아람이 했던 행동은?	
관계의 파괴	소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2. 이모와의 대화가 아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결혼에 대해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도 예의는 다 하고 싶었어. 같이 보낸 시간은 소중한니까.”  
 나는 이모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여러 번 끄덕거렸다.  
 “우리 아람이랑 이런 이야길 하다니. 아, 이모 너무 행복해.”  
 이모의 난데없는 고백에 갑자기? 하면서 웃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아람아.”  
 나는 이모를 보았다.  
 “너희 엄마랑 나랑 자매인데도 이렇게 다르잖아. 그럼 내가 틀렸다고 비난받아야 할까? 눈치 보며 살아야 해?”

— 127쪽

---

---

---

---

---

---

---

---

3. 이 작품은 사과가 반드시 용서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시기를 놓친 사과’라고 생각했던 말이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은 한마디’로써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잊은 걸까? 잊어버린 걸 내가 쓸데없이 들춘 걸까?  
“놀이터에서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  
잠시 동안 나를 멀뚱히 보던 구은해가 아! 하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이제야 기억났다는 듯이.  
“사과하는 거야?”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구은해도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나 정말 상처받았어.”  
말의 내용과는 달리 산뜻한 어조였다. 마음이 저릿했다.  
“너 진짜 미웠는데.”  
순식간에 눈앞이 흐려졌다.  
“나, 그때 너랑 친하게 지냈던 시간, 좋았어. 소중한 거.”  
“그랬으면, 음…… 다행이다.”  
구은해가 나를 향해 얇게 웃었다.

— 130쪽

4. 아람과 은혜의 관계처럼, 한때 가까웠다가 멀어진 관계가 있는지 떠올려 보자. 그 관계에서 내가 받은 것, 혹은 남겨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보자.

세부 지도안	읽기 중 활동	6차시
	「궤도를 벗어나면」	

1. 정연과 영음은 시간차를 두고 각자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 사람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정연	영음

2. 다음의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의 시간차가 영음의 생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자.

문득, 근린공원의 벤치에서 정연이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용기가 없어. 갑자기 넘치는 시간이 무서워. 나는 불현듯 그 말을 이해했다. 눈물이 활활 흘렀다. 정연이 혼자서 견뎌왔던 그 캄캄한 시간이 떠오르자, 불가항력이었다. 그때 정연은 단 한 컬레의 운동화만 신었고, 머리를 내버려두었고, 웃지 않았다. 그런 채로 저렇게 사정없이 흔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 151쪽

---

---

---

---

---

---

---

---

---

---

3. 다음은 영음이 정연에게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다. 왜 이 짧은 메시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했을까? 메시지를 받은 정연의 마음과 메시지를 보낸 영음의 마음을 각각 적어 보자.

— 정연아, 잘 있어?  
 정연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곧바로 답했다.  
 — 나, 지금 가?

— 152쪽

정연의 마음	영음의 마음

4. 이 작품에서 ‘달리기’의 의미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달리기의 의미는 각각 어떻게 달라질까?

전반부	후반부

5.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만든다고 할 때, 배경 음악으로 넣고 싶은 음악(노래)을 쓰고, 그 음악(노래)을 고른 이유도 함께 써 보자.

“거기서 그때처럼 뛰자.”

“그때?”

“네가 나 약 올렸을 때처럼 말야.”

정연은 금방 그날을 떠올리고 푸푸 웃었다.

“너 뭘 수는 있고?”

“그럼. 목발을 짚어도 뭘 수 있거든. 오늘 새롭게 알았지!”

내가 괜히 으스스대며 말하자 정연이 대답했다.

“그러든지.”

“내가 이길 거야.”

“그러든지.”

정연의 똑같은 답에 내가 먼저 ㅋㅋㅋㅋ 웃었고 정연도 뒤따라 킁킁킁 웃었다. 우리가 웃는 동안 은빛 운동화와 초록빛 운동화도 마침내 달릴 준비를 마친 것처럼 꿈틀거렸다.

— 166~167쪽

- 배경 음악으로 넣고 싶은 곡

---

---

---

---

---

---

---

---

- 이 곡을 고른 이유

---

---

---

---

---

---

---

---

세부 지도안	읽기 중 활동	7차시
	「담력 테스트」	

1. 찬희는 평호의 괴롭힘을 알면서도 왜 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다음의 내용을 써 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찬희가 두려워하는 것	평호 무리에 남은 이유	찬희가 진짜 원하는 것

2. 다음을 읽고 찬희에게 진이 형이 없었다면 어떤 삶이었을지, 찬희에게 진이 형은 어떤 존재였을지 생각해 보자.

나는 어릴 때부터 진이 형네 집에 살다시피 했다. 우리는 같은 처지라 학원 같은 곳엔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형은 내게 라면을 끓여 주었고,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물었다. 게임을 같이 했고, 꼭 싸워야 하거나 욕을 해야 할 때를 알려 주었다. 고작 두 살 차이였지만, 어른 같았다. 나는 학교에서의 일들을 형에게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했다. 형은 라면을 끓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도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어 주었다. 특별히 힘들었던 날에는 같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캄캄한 하늘을 보면서 같이 욕도 했다.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 주었고, 형네 세탁기로 내 더러운 옷을 빨아 주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전혀 관심이 없어도, 관심은커녕 내가 있든 말든 아랑곳없이 돌이 목을 조르며 싸워도 형이 있어서 괜찮았다. 진이 형이 내 옆에 있어 줄 거니까.

— 183~184쪽

---

---

---

---

---

---

---

---

3. '담력'의 사전적 의미는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을 의미한다.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찬희는 진짜 담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담력'의 의미가 작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호 무리에 의한 담력 테스트와 다음의 장면을 고려하여 써 보자.

하지만 담력을 어디다 써야 할지는 이제 알았다. 그건 바로 진이 형 방문 앞이다. 형이 방에서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 내는 데 써야 한다. 오도 가도 못하는 형에게 여기 발끝이라도 디딜 곳이 있다고, 내미는 손을 잡아도 된다고 알려 주는 데 써야 한다.

나는 진이 형네 집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 196쪽

평호 무리에 의한 담력의 의미	찬희가 깨달은 진짜 담력의 의미

4. 찬희는 작품의 마지막에 자신이 '어디에,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내가 찬희라면 그 깨달음의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찬희의 입장에서 짧은 편지나 메모를 써 보자. (진이 형에게 혹은 자신에게)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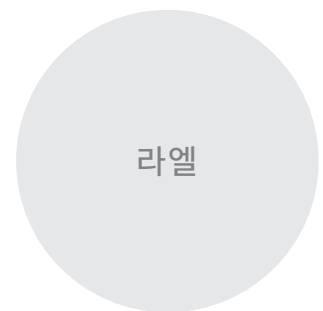
.....

.....

.....

세부 지도안	읽기 중 활동	8차시
	「모두가 같은 마음」	

1. ‘은이’, ‘혁준’, ‘수영’, ‘라엘’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처럼 엇갈림 속에서도 공통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인물들 간의 감정과 감정의 방향, 관계 등을 표현해 보자.



2. 다음의 장면은 SNS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철회하고 조심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은이의 행동은 어떤 감정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틀 전 밤, 라엘의 SNS 계정에 처음 들어갔을 땐 보이는 족족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나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누르지 않았다. 좋아요를 누르면 자신이 라엘의 SNS를 보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었다. 은이는 이미 보았던 게시물을 다시 보면서 일일이 좋아요를 눌러 하트를 없앴다.

하지만 은이는 그때와는 무언가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SNS를 보고 있다는 것을 라엘이 진짜 모르길 바라는 동시에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새잎처럼 돌아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은이는 라엘의 게시물마다 모두 좋아요를 눌렀다.

— 217~218쪽

---

---

---

---

---

---

---

---

---

---

3. 은이와 사귀게 된 혁준은 은이에게 일 순위 자리를 당연하게 요구한다. 누군가에게 일 순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

---

---

---

---

---

---

---

---





세부 지도안	읽기 후 활동	10차시
	질문 만들고 확장 토론하기	

1. 모둠의 친구들과 다음의 키워드를 질문 초점으로 하여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자.

질문 초점 : 약한 연결

질문 만들기 규칙

- 1) 정해진 시간 동안 멈추거나 판단하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질문을 만든다.
- 2) 친구들이 만든 질문들은 모두 기록한다.

친구들과 만든 질문들

2. 친구들과 만든 질문 목록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거나 알아보고 싶은 질문을 세 개 선택해 보자.

선택한 질문

1)

2)

3)

3. 선택한 질문 중 하나를 골라 모둠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

우리 모둠이 선택한 질문 :

---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

---

토의에서 인상적이거나 새롭게 깨달은 점

---